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사회적가치평가 발전방향 모색

나성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정책연구소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
e-mail: nasungyong@kict.re.kr

Exploring the development of social value evaluation using public data

Sungyong Na

Post Construction Evaluation & Mgmt. Center, Dept. of Construction Policy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KICT)

요 약

우리나라에서는 대규모 건설공사, 인프라 시설의 건설에 앞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시설물의 효과를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평가제도는 건축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정량적인 효과를 중심으로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건축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효과에 대한 부분은 평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건설공사 사후평가는 건축시설물의 파급효과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의 파급효과 분석은 단순한 통계비교에 머물러 있어 그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개별 공사마다 파급효과에서 활용하는 지표가 상이하고, 평가 기준도 상이하여 사업간의 효과를 비교할 수도 없는 분석이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결과의 신뢰성확보와 평가의 공정성을 위하여 표준적인 국가지표를 활용한 평가기법을 검토하였고, 그 중 국토조사 및 국토지표를 활용한 환경성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사회적가치, 건설공사 사후평가, 파급효과, Social Value, 공공정책, SOC

1. 서론

건설공사 사후평가제도는 공공건설사업의 사업성과를 평가하는 제도로써, 건설공사 공사비 300억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500억 이상의 사업은 사업효율평가와 파급효과 분석을 포함하여 준공 5년 이내에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파급효과 분석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지 주변의 변화를 조사한다. 인구이동, 지역경제활성화, 안전, 교통사고 등 사업시행 전과 준공 이후의 비교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파급효과 분석은 사업시행 전후의 통계지표의 변화만을 평가하는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사업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은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사후평가 수행에 새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은 발주청의 혼란을 가중하게 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평가 파급효과 분석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중 환경에 대한 평가지표를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평가결과 활용을 적용해보았다.

정책효과 평가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것이다. 사후평가의 파급효과 분석은 정책효과에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데이터로서의 활용가치를 갖고 있으나 현재는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파급효과와 정책효과 분석의 지표와 평가기준을 통일하여 일관성있는 평가제도를 완성한다면, 정책효과와 파급효과 분석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그 활용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2.1 파급효과 분석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의 파급효과는 건설사업 수행이 해당지역의 경제와 주민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평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통합평가표에서는 파급효과의 평가항목으로 주민의 호응도 및 사용자 만족도를 평가항목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로는 민원, 하자, 지역경제(인구 수, 종사자 수, 지역 총 생산, 지가 상승률), 환경을 평가지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중 지역경제와 관련하여는 개통시점과 현재(사후평가시점)의 통계값을 비교하고 있다.

2. 사회적 가치 평가

